고의숙 교육감 첫 조직 개편안 내달 공개

도교육청 13일 TF 회의… 교육감 공약 초점
4·3교육과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주목
2년간 공석인 '정무부교육감' 직제 존폐 관심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 1일 조직 개편 단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초쯤 개편안을 공개한다. 고의숙 교육감 체제의 첫 조직 개편으로,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어떻게 갖춰질지 주목된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조직 개편 TF(태스크포스)팀 2차 회의가 이날 개최됐다. TF는 도내 학교 교원과 교육행정직,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1차 회의에선 조직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2차 회의를 거쳐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교육청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내부 협의 과정을 통해 이달 안에 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핵심은 공약 실현을 뒷받침할 조직 구성이다. 고의숙 교육감의 공약 과제에 포함된 제주 4·3교육과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담당관 신설 등도 조직 개편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기존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넘어 기능 강화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전체 조직 안에서의 조정이 예상된다.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한 데에도 이런 취지를 반영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개편 규모도 관심사다. 조직 개편 목표 시점인 내년 1월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편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임 교육감 당시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직제 존폐 여부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 신설 이후 2년간 공석인 데다 여전히 찬반이 맞서는 만큼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미 만들어진 직제를 활용해 교육 현안에 대응하자는 쪽과 제도 자체의 명분과 실익이 떨어진다는 쪽의 의견이 엇갈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무부교육감 직제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직제 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있는 직제이다 보니 밑에 있는 조직이 조정되면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길 조직 개편안은 오는 9월 초쯤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내부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같은 달 2일부터 23일까지 제455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2~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IB학교를 찾아 IB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살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 IB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할 것"

고 교육감, 싱가포르 IB학교 찾아 적용 방안 논의
교사 전문성 향상·행재정 지원 강화 등 계획 언급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제주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예고했다.

고 교육감은 지난 12~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IB 학교를 둘러보고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방문단은 이 기간 싱가포르 예술학교 SOTA(소타)를 찾았다. IB DP(고등학교 과정)와 CP를 운영하는 예술 특성화 독립학교로, CP는 IB DP 학문 기초 위에 실습과 직업교육을 결합한 직업연계 프로그램이다.

교육청 방문단은 이곳에서 교장을 포함한 학교 운영진을 만나 IB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IB 월드스쿨인 SOTA는 무용, 영화, 문학 예술, 음악, 연극, 시각예술 전공의 6년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미 윤 교장은 "국가 예술,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소개하며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만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독립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CP 담당 교사만 60명이고 DP 교사는 100명, 행정 직원은 100명 수준"이라며 IB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 양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고 교육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하면서 제주 IB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고 교육감은 "연수를 강화해 IB 교사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제주 IB 교육과정의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지은기자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 추진

도, 서귀포시 서호·호근·서홍동 권역 대상
하천 정화 등 주민 참여형 생태경제 모델 구축

제주의 생태자산을 보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서귀포시 서호동, 호근동, 서홍동 권역에서 추진된다.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생태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제주형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 제주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와 서호동, 호근동, 서홍동 마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과 운영규정을 확정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권역은 한라산에서 하천을 거쳐 해안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중심으로 치유의숲, 미로숲, 5개 하천, 고근산, 하논분화구 등 다양한 생태·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동과 연계해 외래식물 제거, 하천 정화 및 감시, 생물종 서식지 관리, 탐방로 정비 등 주민 참여형 생태보전 활동을 추진한다.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치유·휴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태힐링센터 등 생태·치유·체험 기반시설 조성 대상지도 발굴한다.

특히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권역 단위 생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생태자산을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제주형 모델을 마련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사업과 연계해 생태보전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경제 모델로 확대해 나간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이상고온' 등 국가지원 강화 재해2법 내일 시행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이전 생산비용도 지원 가능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해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한 농어업 재해2법이 15일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법률에 대해 그간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과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재해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재해보험 상품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업재해 발생빈도, 피해정도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재해대책법의 경우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해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했다.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업 세부 피해규모,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만족도, 재해대응 요령 인식수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주) 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직 원 모 집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소 속
관리팀(총무회계)

■ 직 무
총무(구매, 계약 등) 및 회계(전표, 계산서 발행 등)

■ 모집인원
1명(제주도민 우대)

■ 모집기간
2026. 8. 10(월) ~ 8. 14(금)

■ 제출서류
이력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경력자 한함)

■ 제 출 처
youth@booyoung.co.kr

■ 문 의 처
T. 064)760-5711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1,253,430㎡
라. 사업종류 :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마. 사업시행자 :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바. 승인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6년 8월 28일(금) 16:00
나. 개최장소 : 애월읍사무소(애월읍 일주서로 6322) 2층 회의실
다. 주 재 자 : 이동욱 교수(제주대학교)

3. 공청회 의견진술자 추천
가. 추천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나. 추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작성
다. 제출장소 : 제주시 관광진흥과 (☎ 064-728-2763)
라.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2026년 8월 21일 까지)

4. 기 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주) (☎ 064-786-1101), 제주시 관광진흥과 (☎ 064-72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